

국민연금공단과 지역금융 발전 모색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글로벌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논의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전주시정 목표로 내세운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전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범기 시장은 9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과 함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집적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글로벌금융사의 전주사무소 유치 방안 및 금융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으로 내세울 만큼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다. 우 시장의 이번 방문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찾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기관 이전 활성화를 위한



우범기 시장은 9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과 함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향후 지니포럼(국제금융포럼)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에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유치를 대비해 전북혁신도시 내 생활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복합시설로 조성 중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꾸준히 현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전주시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기업 등을 꾸준히 방문해 전주와의 협력을 당부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다시 큰 그림, 큰 뜻을 가지고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전주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기관과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가지면서 전주 발전을 위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이후 지역산업육성과 지역인재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등에 힘써주며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야”

전주시보건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발해진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감염병과 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9일 밝혔다.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전파되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등이 있다.

이들 감염병의 경우 주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복통과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

도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제공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민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집단발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요즘같이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천사마을희망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9기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기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사회보장 연계협력 협의·건의 등 수행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9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천사마을희망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9기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실무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 △실무위원장 선출 △시 협의체 추진사업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9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은 오는 2024년까지 대표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각 분야를 대표해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과 사회복지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및 7개 실무분과 간 조정·연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성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민·관이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에서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매년 시민들에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들의 발전적인 조언과 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대표 탄소중립건물로 조성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전주자연생태관을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한민국 탄소중립모델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시는 9일 사회혁신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민선8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용역사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관계자, 건축·에너지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률 100% 이상 달성’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자연생태관을 탄소중립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평면 및 단면 계획과 외부공간계획이 소개됐다. 또, 탄소중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한 태양

광 설치 및 지열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한 계획들도 다뤄졌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건축·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자연생태관 운영 관리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는 설계용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 설계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2074㎡ 규모의 자연생태관을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3등급 이상, 1등급 인증을 목표로 한 건물로 바뀌나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물 리모델링과 더불어 자연생태관 내부공간도 새단장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전주의 생태’를 주제로 △실감영상 △그래픽 △터치디스플레이 △게임체험 등 다양한 제작방법을 적용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민선8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자연생태관은 앞으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탄소중립건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시 자연 생태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조작’ 여론조사 개입 28명 입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된 관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쟁범죄수사대는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하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수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요금 청구지를 장수로 임의로 조작한 뒤 여론조사에 참여해 2번 이상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장 후보 녹취록 내용 중 ‘장수지역 여론조사와 관련해 작업을 해줬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기관 5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분석해 장수지역으로 요금 청구지가 이전된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또 통신내역을 통해 이번 사건을 주도한 10명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단행,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양성민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 경선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중앙당에 제심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

가 번안된 소재 마을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원씩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휴대전화 중 일부는 권리당원 투표에 사용됐다”며 대리 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43.7%를 얻어 56.53%(신인 기점 20% 포함)을 얻은 최후순위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대리 투표 의혹으로 다시 치러진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서 최 예비후보가 승리하면서 장수군수로 당선됐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